

동지가 금속노조다! 대전충북지부

26호

발행인 : 김정태
발행일 : 2016년 7월 11일(월요일)
발행처 :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교육선전부



중앙-지부교섭 결렬! 조정 중지!

금속노조의 중앙교섭과 지부교섭이 모두 결렬된 가운데 11일 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합법적인 쟁의권이 확보된 것이다. 기존에 쟁의권이 확보되어 있던 투쟁사업장을 포함하면 교섭권이 없는 한국타이어지회를 제외하고 모든 지회가 쟁의권을 갖게 됐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지부파업으로 돌파하자!

현대차가 부품사 노사관계에 직접 개입하고 있어 자동차 부품사가 많은 지역지부들의 교섭이 지지 부진하다. 우리 지부도 마찬가지다. 임금안이 나올 기미가 없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사측 개악안이 아직도 철회되지 않고 있다. 지부교섭에서는 일반 해고를 도입하려는 자본의 의도를 볼 수 있다. 몇몇 사업장은 노골적으로 휴가 이후에나 교섭하자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완성차와 직접 관련없는 사업장도 마찬가지다. 노동부 지침을 핑계로 개악안을 들고 나와 교섭을 어지럽히고 있다. 여전히 휴가 전 타결은 힘들어 보인다.

올해 우리가 임단협 말고도 현대차 등 재벌을 상대로 싸워야할 이유가 또 있다. 바로 한광호 열사 문제다. 현대차와 유성자본의 노조파괴로 목숨을

잃은지 117일째인데 문제 해결은 멀기만 하다. 지부의 힘이 하나로 모이는 지금, 한광호 열사 투쟁을 승리로 끝내야 한다. 단결된 지부의 힘으로 열사투쟁을 승리하면 노조파괴 사업장에서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자본과 정권의 공세로 꼬인 임단협과 열사 투쟁을 마무리 지을 강력한 투쟁을 준비하자. 강력한 지부 파업을 조직하자. 준비는 이미 돼있다. 이제는 결의와 실천만이 남았다.

최대 규모의 지부 파업 만든다

지부는 18일 열사투쟁 승리, 노조파괴 분쇄와 임단투 승리를 위한 지부 파업 출정식을 준비하고 있다. 지금 분위기는 어느 때보다 뜨겁다. 근래 들어 최대 규모의 파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위력적인 지부 파업을 통해 우리가 모이면 얼마나 강한지를 확인할 것이다.

22일에는 금속노조 전 조합원이 파업 상경투쟁을 한다. 재벌개혁을 목표로 양재동 현대차 본사 등에서 투쟁을 벌인다. 경제위기의 주범은 재벌이라는 점을 전 사회적으로 알려낼 것이다. 지부는 현대차를 상대로 열사문제 해결을 요구할 계획이다.

18일 지부 전체 조합원의 힘으로! 22일 금속노조 15만 조합원의 힘으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 망설임은 필요없다!

열사정신 계승-노조파괴 분쇄! 재벌에게 책임을! 2016년 투쟁승리!

718 지부 총파업 출정식

- 일시 : 2016년 7월 18일(월) 14시
- 장소 : 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앞 → 보쉬 (본대회)

한광호열사 투쟁승리! 재벌 개혁!

722 총파업 상경투쟁

- 일시 : 2016년 7월 22일(금) 16시
- 장소 : 서울 양재동 현대차 본사 앞 등